

한인 2세 영적 축제 2023 YHCC 차세대 부흥 이끈다

미주 한인 사회의 꿈과 희망
12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포모나 셰라톤 호텔에서 개최

미주 한인 차세대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Youth Higher Calling Conference)가 오는 12월 26일(화)부터 29일(금)까지 포모나 셰라톤 호텔(Sheraton Hotel)에서 열린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로 일어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주최하고 순 무브먼트 글로벌(SOON Movement Global, 대표 오윤태 목사)이 주관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찬양과 말씀, 선택 강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길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와 불잡아야 할 비전에 대해 도전하게 한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는 지난해 참석한 학생 가운데 46%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28%의 학생들이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미주 한인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올해 컨퍼런스도 4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형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컨퍼런스를 통해 미주지역 한인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기회를 제공하고, 믿음의 친구

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또 전문 상담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 상담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석 대상은 6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며 모든 순서는 영어로 진행된다. 등록비는 11월 30일까지 등록할 경우 300달러, 1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330달러, 12월 11일부터 26일까지는 360달러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는 "마약과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우울증과 불안감 호소 등 미주 한인 청소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교회와 미주 한인사회가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앞으로 미국을 이끌 한인 청소년들을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인생의 비전을 심어주는 매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순 무브먼트 글로벌 오윤태 목사는 "미주 한인 2세대는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귀한 자원들로 이들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과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칠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한인 2세대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각 교회에서 적극적인 기도와 참여로 동역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유스 하이어 콜링을 준비하는 주최 측은 한인 청소년 육성에 뜻을 같이 할 교회와 목지가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후원금 등록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지난 해 유스 하이어 콜링 컨퍼런스 사진. ©Soon Movement Global

美 낙태권 문제 2024년 대선에 중요한 영향 끼칠 수도

내년 미국의 대선 향방이 낙태권 문제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의하면,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이날 버지니아주에서 진행된 주 상·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 자리를 차지했으며,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된 대법관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낙태권 지지자인 댄 맥커페리가 당선됐다. 또 켄터키주 민주당 소속 현직 주지사인 앤디 베시어도 공화당 대니얼 캐머런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NYT는 이와 관련해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경합주뿐 아니라 공화당 우세주로 꼽히는 켄터키·오하이오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자, 낙태권 이슈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8%p 차이로 여유 있게 이긴 오하이오에서는 57%가 낙태권 보장 개헌안을 지지했다.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26%p 차이로 이긴 켄터키주에서도 낙태권을 앞세운 베시어 주지사가 승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지가 강세인 대도시 주변 교외 지역의 고소득 유권자층에서도, 여성을 중심으로 낙태권 문제로 민주당 쪽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보인다"고 전했다. 공화당 측 인사인 마이크 마드리드는 "많은 유권자, 특히 여성들이 공화당을 떠나고 있다"며 "대학 교육을 받은 교외 지역의 여성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반대의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AP통신에 의하면, 실제로 메릴랜드, 워싱턴 등 10여 개 주에서 내년 선거 때 낙태권 보호를 위한 주 헌법 개정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NYT는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 재출마한 미 대선은 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치러져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와 달리 내년 대선을 낙태 금지 등 극우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바꾸겠다는 바람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낙태권 이슈가 고령 등에 발목이 잡힌 바이든 대통령의 낮은 인기를 극복할 만큼 내년 대선에서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순무브먼트글로벌이 지난 8일 LA 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 교회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기독일보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미국 ↔ 한국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내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4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월드미션대, 故 임동선 목사 기념 <비전 넥스트> 개최

고인의 비전 이어나갈 것 선교·교육·봉사에 중점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故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마지막 기념 행사인 <비전 넥스트>가 11일 오후 6시에 학교에서 열렸다.

설교를 한 송정명 목사(WMU 2대 총장)는 “임 목사님은 93세 입에도 불구하고 남미의 네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후유증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다. 예수님께서 품었던 사역을 근간으로 해서 임 목사님이 비전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 선교, 봉사”라면서 “저는 임 목사님을 49년 동안 섬기면서 지근거리에서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분을 잘 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삶으로 보였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목사는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고 한달 동안 모은 헌금을 한푼도 본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한국 농어촌교회에 보내셨다. 임 목사님은 말로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농어촌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지구촌을 나의 목장으로 삼고 그렇게 사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제가 교계활동을 오래 하고 있는데, 한인교회의 많은 반주자와 지



월드미션대학교 설립자 故 임동선 목사 탄생 100주년 마지막 기념행사인 <비전 넥스트>가 11일 오후 6시에 학교에서 열렸다. ©기독교일보

휘자가 월드미션대학교 출신이다. 하나님께서 월드미션대학교를 세우신 이유가 이민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서 “설립자가 가슴 속에 품었던 비전이 이 대학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모든 교직원들이 설립자가 가졌던 꿈과 비전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아가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비전넥스트 메시지를 전한 임성진 총장은 “많은 신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줄고 있고 기독교 관련된 학과들이 약화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 학교는 목회와 신학과

더불어 다양한 학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많은 다민족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학과가 생기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인의 자질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도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고 임 목사님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선교와 교육 그리고 봉사에 중점을 두고 나갈 것이다. 교육은 월드미션대학이 하면 되고 선교를 위해 DSLIM 파운데이션을 세웠다. 뜻이 있어도 재정이 없으면 비전을 감당할 수 없다. 한달에 10달러

도 후원자가 되어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날 특별히 학교에서 제작한 임동선 목사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있었고 논문집과 화보집이 소개되었고 더불어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날 WMU 미래를 위한 통성기도로 행사는 마무리 됐다.

고 임동선 목사는 서울신학대와 숭실대 철학대에서 공부하고 1948년 서울 아현성결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으로, 한국 공군초대 군종감(대령)을 지내며 젊은 시절을 군복음화에 헌신하다가 퇴임 후 유학을 결심하고 미국으로 왔다. 한인 이민 선교의 선구자로 불렸던 임 목사는 1970년 47세에 ‘선교·교육·봉사’라는 3대 가치를 내걸고 동양선교교회를 사택에서 개척해, 1990년 은퇴하기까지 동양선교교회를 미주한인디아스포라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시켰다. 후배 사역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OMC를 통해 40여 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인도했다.

1989년에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넘어 아시아, 남미 등 세계 선교를 위한 지성과 영성 및 덕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월드미션대학교를 설립해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놓았다.

토마스 멩 기자

남가주교협 제54차 총회, 신임회장에 최영봉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13일 영생장로교회에서 제5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으로 최영봉 목사를 연임, 수석부회장에 샘신 목사를 선출했다. ©기독교일보

23년 11월 13일(월)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 54차 총회를 통해 공천위원회(위원장 정해진 목사, 서기 민중기 목사)에서 공천한 후보 최영봉 목사를 회장에, 샘신 목사를 수석 부회장에 선출하였다. 또한 지원서를 제출하고 공천위원회를 통과한 선출직 부회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최영봉 목사는 “교협이 안정되어야지 교계가 안정이 된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성원해주기 바란다. 임원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면서 “교계 안에 젊은 목회자

분들이 새로 오셨다. 물론 교계 안에 좋은 선배 목회자들이 계시고 더불어 능력 있고 설교 잘하고 참신한 목회자들이 교계에 들어왔다. 교협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1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재연 목사(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는 막 10:45절을 본문으로, 목회자가 가져야 하는 덕목을 제시했다. 그는 “교회를 이리로부터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험기를 빼고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가야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

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과 같이 섬기기에 충성하기를 바란다”고 설교했다.

제 2부 정기총회 회무처리에 들어간 남가주교협은 참석 회원출석을 확인 후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한 후 시작되었다. 총무 김창영 목사의 53대 남가주교협의 부활절 연합예배와 8.15광복절 감사예배 등 사역과 업무들을 문서로 보고한 것을 받기로 하였다. 재정 감사와 회계 보고를 마친 후 새임원 선출에 들어갔다.

공천위원회는 증경회장 5인과 교협 임원 3인, 이사 2인의 추천으로 구성된 10인의 공천위원회가 3차의 모임과 검증, 면담을 거쳐 확인된 최종안건을 서기인 민중기 목사의 공천위원회 결과를 보고받고 만장일치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새로 선임된 회장 최영봉 목사(LA 건강한교회), 수석부회장 샘신 목사(샘커뮤니티교회), 기획부회장으로 선임된 이성우 목사(크리스천헤럴드 대표)와 새로운 임원으로 함께 하게 된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의 신임 회장단 인사를 통해 54대 남가주교협의 바른 위상을 세우고 새로운 비전과 각오를 밝히면서 참석한 모든 회원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갖게 하였다.

김민선 기자

교회 단신

▶동부사랑의교회(우영화 목사)는 ‘영권회복’ 주제로 12/4~8 새벽 5시에 제17차 연말특별새벽부흥회를 진행한다. 설교는 12/4(월) 우영화 목사, 12.5~8(화-금)권준 목사가 한다.

▶얼마인 은누리교회(박신용 목사)는 선교사자녀 수련회 ‘Masterwork’를 12/18(월)~21(목), 비전홀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미주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선교사 자녀이며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 할 수 있다. 문의: 박찬민 목사 949-522-1748 (min@irvineonnuri.org), Michael Cha 전도사 847-275-2308 (cha@irvineonnuri.org)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는 11/27~12/9 (평일 오전 5시, 토요일 오전 6시)에 ‘은혜의 대로를 열어 주소서’라는 주제로 연말특별새벽부흥회를 진행한다. 강사는 하근수 목사(동탄시온교회), 류응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김태권 목사(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 은퇴목사), Joel Kim 목사(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 Darin McWatters 목사(Fullerton Free Church), Alex Choi 목사(Imago Dei Church).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Proverbs318Law.com

-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특별한 캐릭터 가득한 이민 교회 성장의 임계점 넘으려면 이것 높이 세워야

미자립 개척 교회들을 돕고 상생하는 길을 열기 위해 기획된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가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감사한인교회에서 진행됐다.

첫 날 저녁집회에서, 김영길 목사(TMF 대표)는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마 11:29-30)라는 제목으로 집회에 모인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에게 자신의 목회의 경험을 나누며 참석자들을 위로하고, 목회라는 힘들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전하며 소망을 전했다.

그는 “옛날에 제가 교단 총회장을 하면서 자주 목사님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 길로 들어섰습니까? 가서 잔디만 깎아도 2만 달러는 버는데, 이 일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보배로운 길이라 생각해서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배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감격스러움을 갖고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30분 설교하고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는 1983년 개척을 막 시작할 무렵, 가난했던 시절을 회상했다.

“1983년에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아내와 저는 2시간 30분 청소를 하고 20달러를 받았다. 20달러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슈퍼마켓에서 카트가 가득 채워진다. 교회를 시작하고 1년 반쯤되었을 때, 교인이 100명 쯤 되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안경 너머로 웃으며, ‘목사님, 30분 설교하고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셨다. 저는 웃음이 안 나왔다. 그때 제가 받고 있는 사례비가 700달러였다. 다운타운에서 애들 둘과 제 아내와 네 식구가 사는데 1200 sqft 집 렌트비가 한 달에 1,000 달러였다. 굶고 살아도 절대 부족한 돈이 300 달러였다. 공리하고 공리하다가 LA 타임스를 배달하는 장소를 찾아갔다. 한 달에 600 달러를 받으며 비오는 겨울이면 비닐을 씌워 배달하며 300 달러 부족한 집값을 넣고, 십일조를 내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때였다.”

이민교회에서 목회하며, 제직회의 때마다 ‘빨리 다른 목사님을 찾으라’고도 했다. 한 번은 안수집사가 그를 교회 뒤로 끌고 가더니, “목사님이 그만두신다 할 때 마다 간이 붙었다 떨어진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만둬 버리세요.” 그말에 그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러분 중에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민 오는 수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는 영어권으로 들어가고 교회 전망은 부정적이다. 미국 중소도시 교회를 찾아가 보면, 특별히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 보면 심각하다. 교회 평균 연령이 65-75세이고, 젊은이는 아예 없다. 그 외에도 많은 명제가 있다. 설교시간에는 여호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에서, 김영길 목사(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가 “겸손하고 온유한 목회”(마 11:29-30)라는 제목으로 저녁 집회를 이끌었다. ©기독일보

수아처럼 ‘담대하라’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저 앞은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어서 그는 플러신학교의 교회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교수의 수업에서 들은, 100 Barrier라는 개념이 잊혀 지지 않는다고 하며, 이 장벽을 넘어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풀리에 있을 때, 피터 와그너 교수님이 얘기하신 barrier라는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데, 100명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해서 곧 100명이 넘을 줄 알았는데, 돌로 나눠지고, 다시 남은 팀들이 기도하고 2~3년쯤 지나서 다시 100명 가까이 갔는데 또 나눠진다. 이민 목회에서 수도 없이 봤다.”

교회 성장의 임계점, 넘으려면

김영길 목사에 따르면, 이민교회가 이 장벽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정’ 때문.

“제가 발견한 이유는, 한국인은 정이 많다. 10명이 모여서 개척하고, 2~30명이 될 때, 굉장히 긍정적 분위기이다. 40~50명이 되면, 목사님이 바빠지고, 섬섬함 들어온다. 굉장히 이중적이 된다. 한편으로는 부흥이 되어서 좋은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공허하다. 옛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떨어져 나간다. 빙산이 떨어져 나가듯 떨어져 나간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의 barrier는 넘어서기 힘들다. 넘어서는 길이 하나 있다. 1미터 보자기를 네 귀퉁이에서 잡아 당기면, 평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방 5미터 정도 되는 보자기를 잡아 당기면 가운데가 축 쳐진다. 20미터 보자기를 잡아 당기면, 그 가운데는 땅에 닿게 된다. ‘장막의 터를 넓히고 줄을 길게 하고’, 줄조. 보자기를 올려야지, 안 올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거기에 꼭 차 있는 것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극에 있는 집들이 지붕이 높은 것 처럼 가운데 기둥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더 넓게 펼칠 수 있다. 중앙

의 기둥은 뭘 상징할까? 교회가 카페를 만들어 사이 좋게 지내게 하면 될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다. 성도가 서로를 바라보며 원망하고 평면적이고 수평적인 교회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다른 길은 없다. 길은 하나 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이다.”

35살에 목회를 시작해, 37살이 되었을 때, 김영길 목사는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목사 되었나요?’ 라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속에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셨다.

하나는 그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63년, 그는 시골마을에 가서 3박 4일동안 여름성경학교 봉사를 했고, 그것을 계기로, 매 주일 45분이 걸리는, 교회가 없던 그 시골 마을에 2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가서 주일예배를 인도했다.

“2년 동안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인도했다. 성탄주일인데,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보니, 난리가 났다. 26살 먹은 처녀가 29살 먹은 총각의 뺨을 올려붙였다. 그리고는 둘이 씩씩거리고 서 있다. 그 모습을 보고, 뺨을 때린 분에게, ‘어떻게 세 살이나 많은 분의 뺨을 때립니까, 당장 사과하세요’라고 말했다. 당시 나는 고등학생이고, 9살 차이가 났다. 그런데 그분이 고개를 90도로 숙이고 사과를 했다.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내게 주시는 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가 태어난 날부터 기도해 왔다” 목회의 소명에 확신이 서지 않던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처럼 떠오르게 한 기억은, 그를 키워준 숙모의 기도였다.

“저를 길러주셨던 작은 어머니가 계시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길러주셨다. 저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농업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동네 어르신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졸업하면 뭐 하려고 하니?’하고 물으셨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한번도 인생의 내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5급 공무원을 할까’, ‘오일장을 따라 다니며 돈을 벌어야 할까?’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또 2주 후에 또 다른 할머니가 저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 작은 어머니가 저와 혈연시간이 아니니, 자립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12월 말 책가방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데 작은 어머니가 여기 앉으라고 하셔서, 마음을 다 잡고 옆에 앉았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너 서울에 한국 신학대학에 가거라. 네가 태어난 날부터 너를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라고 기도해 왔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예레미야를 태중에서 부르셨고 바울을 태중에서 부르셨듯, 저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의 구원

“요나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이다. 하나님과 말씀하는 데 선수였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대든 선지자가 없었다. 요나는 스블론 사람이다. 최북방에 있는 경계선이다. 앗수르 북방에서 남쪽으로 침범해 내려올 때 제일 많이 수탈당했던 스블론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앗수르에게 한이 맺힌 사람이었다.”

그는 요나에 대해, “하나님께 선지자가 부족하신가? 요나 나 버리셔도 되는데,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불렀다. 은혜이다. 교만이 깨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요나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중요한 것은 요나를 바퀴주신 것이다. 요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종 요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바리새인처럼 심판에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까지도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온화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말했다.

겸손한 목사, 너그러운 목사 되면, 짐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겸손한 목사로, 너그러운 목사로, 바뀌시면 우리 목회가 수고가 아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다. 깃털처럼 가볍다. 성도가 몇 명이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연습한 것이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였다.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주 나이브하고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한다. ‘오늘 주일에도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묵상한다.”

“그게 제 마음 속의 원칙이었다. 설교 준비를 했는데 영 감동이 없을 때가 있다. 새벽 1시-2시가 되어도 안 된다. 새벽 4시가 되어도 준비가 안 된다. 새벽 5시, 열린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다. 동시에 제 마음 속에 많지도 않은 몇 개의 단어, 몇 문장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컴퓨터로 설교원고를 작성하고, 45분 잤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주디 한 기자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4 HYUNDAI Kona SEL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Months

NEW 2023 HYUNDAI Santa Fe SEL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L RWD

\$299 10,000 mile/year For 24 Months \$6,995 due at lease signing (MSRP + TAX)

NEW 2023 HYUNDAI Ioniq 6 SE RWD

\$7,5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위 브릿지가 남긴 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마당에 천막 치고 예배 드리다 쫓겨나 그리피스 공원으로 1베드룸에서 2베드룸으로, 갈 곳 없는 청년 가족과 함께

제2회 위브릿지 컨퍼런스가 지난 8일 성료 되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개척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고 개척 목회자들을 입을 모았다. 그렇지만 사정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료 목회자들이 있어서 용기와 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지원을 받지만 동시에 작거나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는 교회, 집 마당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다가 6개월 만에 쫓겨나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교회, 개척한 이래 처음으로 제1회 침례식을 갖게 되었다는 교회 등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 다음은 지난 1년여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는 목회자들의 간증이다.

그 청년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감사하다.

미국교회에 렌트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재정과 외로움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한 목사님이 위 브릿지 컨퍼런스를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셔서 오게 되었다.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교제를 통해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고 개척교회를 하는 여러 분들을 보면서 함께라는 생각이 위로가 됐다.

그리고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사람의 후배에게, 작은 목사에게 건네주시는 덕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로 여겨졌다. 위 브릿지 교회들을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목사님에게 정말 감사하다. 1년의 시간이 정말 감사했다.

생명의 길 교회 박태규 목사

미국에 왔을 때 일터의 현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디저트 가게에서 수박을 썰고 빙수를 내리며, '나는 거룩한 사명자인데 도대체 뭘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행 10장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여졌고, 속되고 깨끗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셨다는 마음이 나에게 부인할 수 없게 밀려왔다. 제가 있는 그 현장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었다. '19, 20살 저와 함께 일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구나.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신 삶의 현상이구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기 급급했던 모습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셨다.

일터의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과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몰랐던 청년들,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던 청년들을 초청해서 식탁 교제를 갖는 게 계기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저희 가정에 오게 되었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저는 세 아이(4세, 2세, 1세)의 아버지이다. 예배 때 아이들이 뛰어나고, 목마를 타기도 해 청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 그럼에도

랜초한인교회 정용암 목사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작은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자체로 감사하다. 남가주 지역에서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는 이런 모델은 이전에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역이 계속 좋은 모델로 남아져 남가주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알려졌으면 좋겠다. 작은 교회와 큰 교회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3년 후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다.

교회 성도들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서 선교사를 돕자는 기도 제목을 내놨다. 이집트에서 사역하는 한 가정에 매달 100 달러씩 후원하고, 위 브릿지를 통해 받는 재정 일부를 떼어 네팔의 선교사 가정용 돕기로 했다.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망을 얻고 다시 네팔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성암교회 김요한 목사

위 브릿지 교회로 섬김을 받으며 감사한 순간이 많았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팬데믹 중에 세워졌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지금은 개척할 때가 아니라며 말렸다. 집 주인에게 허락받고 집 마당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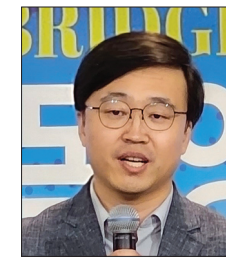
제2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가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개최됐다. ©미주 CGN



박태규 목사(생명의길교회)



정용암 목사(랜초한인교회)



김요한 목사(성암교회)



김상현 목사(주안예교회)

개척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몇몇 청년들이 반주로 예배를 섬겼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도 오셔서 섬겨주셨다.

집 마당에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지인으로부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으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런데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사건이 발생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당장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던 중이어서 '예배를 마쳐야 하나'고 민했다. 아주머니하고 성도들하고 몸 싸움도 이어졌다.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만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예배를 드렸다. 이후 옆집으로부터 그 주 안에 바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의자와 테이블을 가지고 그리피스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아내는 예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오전 6시부터 먼저 공원에 가서 기다렸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한 곳이 지금의 교회이다. 처음에는 저희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소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매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어려운 금액이었지만 들어갔더니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3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첫 해 한 명, 둘째 해에 2명, 지난해에는 5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1 베드룸에 살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있는 2 베드룸으로 이사를 가

게 되었다. 그것도 1베드룸 가격으로 간 것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사했다. 그때 우연하게도 갈 곳 없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 그 청년에게 집을 구할 때까지 저희 집에 와 있으라고 했다. 그런데 청년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들어오게 됐다. 이 분들이 저희 집에 살면서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청년의 어머니가 식사로 섬겨주시게 되었다.

남가주 주안예교회 김상현 목사

올해 1월에 1일 사모와 함께 개척을 시작했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자녀가 5명인 한 가정이 교회에 오기 시작해서 교인이 총 10명이 되었다. 오래지 않아 세 가정이 모였다. 지금은 교인 20명을 목표로 가고 있고, 제1회 침례식을 송구영신예배 겸해서 팜스프링에 가서 할 예정이다. 기독교일보 이인규 목사님이 25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며 가슴이 아파한게 마음에 남았다. 개척을 시작하려 했을 때, 주위 분들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며 만류하셨다. 그런데 250개 교회의 문이 닫혀서, 주님의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마음이었다. 교회 지원금을 받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받는 것도 은혜이다. 잘 받으면 나중에 잘 섬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 브릿지 1기 교회들이 씨드 멤버가 되어 남가주 지역에 위 브릿지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길 소망한다. 정리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487-5437 www.e-NCA.org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 센터메디컬그룹

최우수 등급
메디컬그룹

99세까지 88하게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메디컬 서비스의 시작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유일합니다

1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000명이 넘는 우수한 실력의
의사와 다양한 의료진!

2 남가주 최다 입원 가능 대형 병원

80여 곳이 넘는 병원들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

3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절차!

4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 & 그룹 자체 차량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문의



714-980-3532



cipa@popmso.com

◎ 센터메디컬그룹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ww.centeripa.com



OC 기독교전도회연합회, 선교사 자녀 장학생 모집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가 4일(토) 갈보리선교교회에서 11월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4일(토)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421차, 2023년 11월 월례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 강사로는 이서 목사(OC 교협 증경회장, 미주비전교회 담임)가 초대됐다. 이서 목사는 에베소서 1장 3-6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에서 이서 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를 얻는 것에 주목하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어느 말기 암으로 투병중인 성도가 자신의 고통과 아픔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자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나 보다 더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다"고 하나님과 성도간의 관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는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와 목회자, 선교사와 선교지, 연합회의 남은 활동과 건강이 좋지 못한 이사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소연 이사는 "한 영혼의 구원과 OC지역 복음화를 위해 전도회연합회가 쓰임 받는 기관이 되게 해달라. 전쟁으로 생명의 위협과 슬픔에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마침 기도했다.

2부 순서에서는 OC지역교회 및 교계단체의 활동에 대해 나왔다.

한편, 연합회는 또 제4회 선교사자녀 장학생 모집을 11월 30일까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홈페이지(www.ockca.org, 연합회 소식-공지사항)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ockca1@gmail.com으로 온라인 지원하면 된다. 대상자는 해외 한인 선교사 자녀로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현장선교사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하며, 한 가정에 한 명, 한국과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관 선교사 자녀는 제외한다. 선교사자녀는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장학금을 총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연합회는 그 동안 선교사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통해 1회 15명, 2회 50명, 3회 52명에게 총 58,500불을 지원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OC 인근지역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함께 신앙을 다져가며 교계와 연합활동을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회복하고 건강한 기독교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평신도라면 교단을 초월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홈페이지: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다니엘 김, 라크레센타 한인 시의원 당선



지난 10~11일에 크레센타밸리 타운의회(Crescenta Valley Town Council) 선거에서 한인 대니얼 김 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임기는 1년이다. 크레센타밸리 타운의회는 라크레센타

와 몬트로스 지역을 관할하는 시의회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 2018년 3년 임기의 타운의회 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다. 현재 고암건설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내년 1월부터 의원직 임기를 시작한다. 타운의회 시의원은 행정권이 없는 비자치도시(unincorporated city)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다. 김 당선자는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지역 한인들의 민원 처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선 기자

글로벌선교교회 부흥회

글로벌선교교회(김지성 목사)는 11월 13(월)부터 18(토)까지 '인생 전환(Life Transformation)'을 주제로 2023 감사절 특별새벽부흥회를 실시한다. 주 강사는 김지성 담임 목사이며 월~금: 오전 5시, 토: 오전 6시에 실시한다.

CMF-Kid's Celebration, 어린이 웃음과 행복이 넘쳐



11월 10일~11일까지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에서 개최된 제4차 CMF-Kid's Celebration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 하고 있다. ©CMF 제공

→ 지난해(890호) 기사 '하나님을 충추시게 하는 일, 전도는 기쁨이다'에 이어서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는 일이었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들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3년 사역하고 졸업하는 제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역시 '제자를 삼으라' 당부하셨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도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영혼도 지옥의 멸망으로 보내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천국에 가게 해야 한다.

이어 유성국 목사는 전도의 여섯 단계를 나눴다. 첫째, 전도는 마음이다. 마음이 있는 사

람은 병어리라도 전도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쉽게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허락해 주신다. 둘째, 전도 대상자(VIP)를 찾아 나서야 한다. 찾아야 보인다. 나서야 만나게 해주신다. 기도하고 전도하면 대상자를 붙여 주신다. 셋째,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 넷째, 허락해 주시는 환경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섯째, 복음을 전하고, 여섯째, 교회로 인도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누구나 잘 하기는 힘든 것이 전도. 이에 대해 유성국 목사는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 데려올 생각으로만 해서 안 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전도 카드에 써서 매일 짧게 이름이라도 불러 가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길을 열

거정을 세우는 CMF선교원에서 제4차 CMF-Kid's Celebration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11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열렸다. 환영식으로 시작된 첫날 행사는 그룹 성경 공부와 친교, 예배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탁원준 선교사(페루)가 말씀을 전했다.

둘째 날은 그룹 성경 공부와 친교, 미니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철민 장로는 "이번 행사에 유치부에서 9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특별히 50 Km나 되는 먼 곳에서 행사를 참석하러 오신 교회 근처에 속소를 마련하여 자녀들과 함께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수고한 교사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어주신다. 관계를 맺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사실 전도의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지만 나의 성격이나 성향에 맞는 것으로 해야 즐겁게 오랫동안 꾸준히 할 수 있다. 내가 잘 못하고 안 맞는 것으로 전도하려면 힘들고 지친다. 그러니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신약에서 가장 전도를 잘한 사람을 스테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딱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가 바로 전도왕 바울이었다. 우리 교회가 크던 작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딱 한 사람, 스테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전도하면 된다. 교회 전체가 영혼구원에 관심을 갖고 매일 기도하며, 주어진 탤런트와 성향, 환경에 맞게 노력한다면 반드시 영혼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 여러분들은 그런 '전도장군'이다"라고 격려하고 마쳤다. 김민선 기자

Churches for All Generations

가정, 직장, 이웃이 선교지입니다. 성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들

"여호와께 돌아가자" "Let Us Return to the Lord"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Hosea 6:1)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예배시간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주일예배 1부 오전 10:3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www.smkc.us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310.502.9999

김경렬 목사

사이프레스 VINE CHURCH



예배시간
주일예배 KM 오전 11:30
주일예배 EM 오후 1:30
www.vinesocal.com
21732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T)714.686.1441

조진용 목사

Generations to Generations

Mentoring Pastors



KM 조형수 목사



EM 채영일 목사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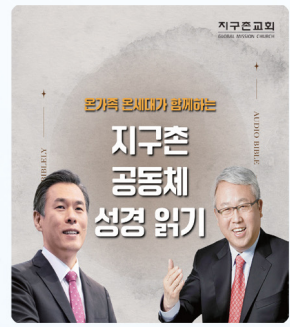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은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 (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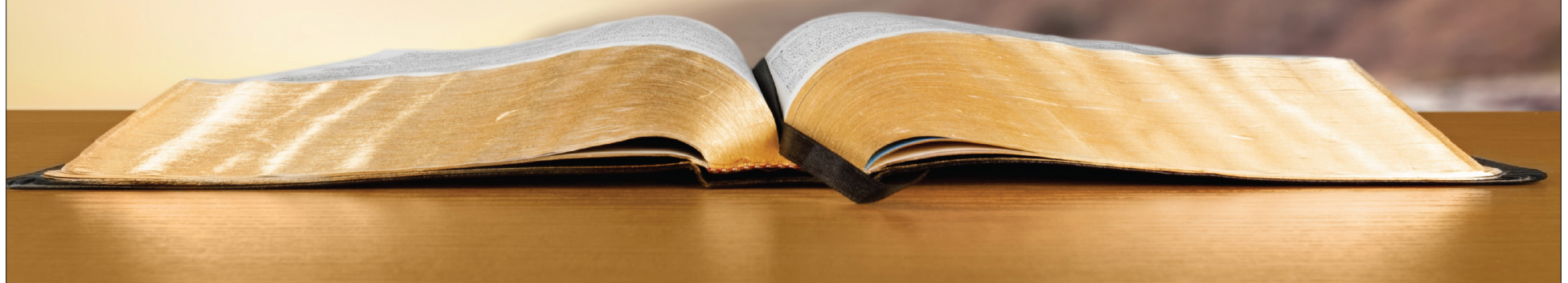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 (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 (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협 손길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새벽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오) 오전 6시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일) - 한정영성예배
대학생남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육과 이인(2세)을 책임지며, 이인(가정)을 치료하여,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대)
T. (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아름다운(AM)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3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아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토-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예배 오전 6:0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 (323) 702-6709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사랑하시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장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장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장기도회(마침내)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kumc.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침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래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네팔 지진으로 150여명 사망 교회 20곳 붕괴돼



2023년 11월 3일 네팔 서부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역 교회 신자들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GFA World

지난주 남아시아의 서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6.4의 파괴적 지진으로 인해 네팔의 수십 개 교회가 붕괴하고, 1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현지 기독교 단체들이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11월 3일 자정 직전에 발생한 지진은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300마일 떨어진 자자르코트와 웨스트 루쿰 지구를 강타했다. 외신은 인도 인근의 넬리를 비롯한 먼 도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국제선교단체인 'GFA 월드'(GFA World)와 '바나바스 에이드'(Barnabas Aid)는 네팔의 종교 시설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GFA 월드 설립자인 K.P. 요한난은 성명에서 지진 피해 지역의 일부 협력 교회들이 파괴되었으며, 한 마을에서만 교회 신자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GFA 월드는 구조 및 구조 작업을 위해 현지 교회 신자들을 동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수천 명의 이재민들에게 식량, 담요, 텐트와 같은 필수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큰 피해를 입은 마을들은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외딴곳에 위치해 있어, 교회 사역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마을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GFA 월드는 피해 지역 안에서 진흙과 벽돌로 지어진 단순 주택 중 90%가 붕괴된 것으로 추산했다. 바나바스 에이드는 또한 지진 이후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18000채 이상의 주택과 최소 20개의 교회가 붕괴했다 현지 조력자의 말을 인용했다. 네팔 서부의 프로젝트 조력자인 탄카 씨는 "심각한 식량 부족과 열악한 생활 환경이 주택 붕괴로 인한 것"이라며 "사람들이 영하의 기온에 노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현지 목회자가 지진으로 그의 딸과 손주 4명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의 구조 노력은 교회 재건까지 이어지지 않아 현지 기독교계는 외부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자자르코트의 지역 병원은 부상자들이 가득 차 있어, 당국은 일부 부상자들을 카트만두로 이송해 치료 중이다. 지진 생존자인 게타쿠마리 비스타는 자신의 참혹한 경험을 BBC에 공유했다. 그녀의 가족은 무너진 집의 잔해에 파묻혔으며, 큰 딸은 구조되었지만 작은 딸은 목숨을 잃었다. BBC에 따르면, 지진은 산사태로 이어져 많은 도로가 막혀 수색 및 구조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네팔에서는 11월 3일 첫 지진 이후, 1시간 이내에 세 차례의 여진이 계속되었다.

2015년 네팔은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9000명이 사망하고 220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지진은 네팔의 기반 시설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국제 적십자사 적신월사 연맹(IFRC)은 주로 서부 및 중부 지역에서 주택 80만 채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고했다.

김유진 기자

무슬림 여성, 무신론자 거쳐 기독교인 된 사연은

무슬림 배경의 아얀 히르시 알리(Ayaan Hirsi Ali)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실을 알리며, 무슬림에서 무신론자로, 무신론자에서 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된 여정을 소개했다.

소말리아 태생으로 네덜란드와 미국 국적의 정치인이자 활동가인 그녀는 이슬람권의 여성 탄압 옹호에 대한 비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슬람에서 무신론자로 전향한 바 있다. 그녀는 '언허드'(UnHerd)에 게재된 자서전에서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의 1927년 강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접하며 위안을 얻었고, 종교적 교리로 인해 주입된 두려움에서 벗어나 무신론자가 되었다"면서 "두려움에 뿌리를 둔 종교에 대한 러셀의 견해가 내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버트런드 러셀이 전미세속주의협회사우스 런던 지부에 자신의 책을 전달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그 책을 읽을 때에는 이후 내가 정반대의 제목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히르시 알리는 9/11 테러 이후 이슬람의 이름으로 행해진 공격의 정당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슬람에 대한 한말이 들기 시작했다고. 나이로비에서 10대를 보냈던 그녀는 무슬림형제단의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이슬람은 종교적 관습을 엄격히 고수하고, 비무슬림, 특히 유대인에 대한 뿌리 깊은 경멸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크리스토퍼 히친스(Christopher Hitchens),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와 같은 무신론자들을 통해 무신론을 접하게 됐고, 이는 과거의 신념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히르시 알리는 자신이 서구 문명이 직면한 도전들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 때문에 기독교로 돌아섰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통합 세력을 추구하는 총재제로서 권위주의 정권, 글로벌 이슬람주의, '우오크' 이데올로기의 위협 등을 꼽는다. 그녀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 자유, 존엄성을 유지하는 가치와 전통의 바탕을 제공하고, 그녀가 무신론과 연관시켜 온 분열에 맞선다. 보수적인 기독교 철학자 로버트 조지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 전, 버트런드 러셀의 저술의 영향으로 그녀는 무신론자가 됐다. 그녀는 무신론이 영리하고 정교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이 무신론을 믿었다고 한다. 그것은 합리성과 시민 자유의 세계로 가는 길이었다. 히르시 알리(Hirsi Ali)가 그러한 잘못된 길을 택한 최초의 사람은 아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이 실제로 잘못된 길이며, '더 훌륭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썼다. 히르시 알리는 또 영적인 위안과 삶의 의미에 대한 개인적 탐구를 통해 기독교를 수용하게 됐다. 그녀는 "무신론이 하나님의 구명을 남겼고, 이는 비합리적 이데올로기의 부상과 서구 가치의 침식을 초래했다"며 "기독교가 이슬람의 그것과 유사하게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동원할 수 있는 통일된 이야기와 기초적인 텍스트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강혜진 기자

장기화되는 이-하 전쟁 미 복음주의권, 이스라엘 계속 지지

하마스에 의한 이스라엘 침공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 복음주의권이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 뱀티스트프레스(BP)가 보도했다.

미국 남침례교 산하 윤리종교자유위원회(ERLC)의 브랜드 리더워드 회장은 지난 6일 성명에서 “오늘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처음으로 끔찍한 공격을 감행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는 죽은 무고한 생명들을 계속 애도하고 이 무의미한 전쟁에 억류된 인질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더워드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신을 방어할 국가로서의 권리를 계속 지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성명에 2천 명 이상의 서명자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독교인들이 양측의 희생자 모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리더워드는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는 국경이 없다”며 “이스라엘이든 가자지구든, 그들이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간에 이 분쟁 속에 갇힌 무고한 생명들을 걱정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며, 이 전쟁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이 분쟁에서 누가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 전쟁은 테러 조직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며 “하마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국민들, 그리고 중동에서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모두의 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문화 평론가 댄 달링은 지난달 하마스의 침공으로 인해 홀로코스트(Holocaust, 독일 나치당이 주도한 유대인 대학살) 이후에 가

장 많은 유대인들이 단 하루 만에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 랜드문화참여센터(Land Center for Cultural Engagement) 소장인 달링은 “범의학 수사관들은 여전히 이 야만적이고 사악한 공격의 세부사항을 종합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유해의 파편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신원을 찾아내려 애쓰고 있다”며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지지 성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이다. 우리는 많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존립할 권리와 자기방어권을 지지하는 데 우리 곁에 있다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독교인들이 경계심을 갖고, 담대히 반유대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달링은 “우리는 미국의 대학 캠퍼스와 전 세계 많은 도시, 심지어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에 실망하고 경악해야 한다”며 “슬프게도, 유대 민족에 대한 증오와 폭력은 하만에서부터 히틀러, 하마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존재해 온 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의 왕이 오실 때까지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이에 맞서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7일부터 하마스 무장세력은 이스라엘인 1400명을 살해하고 수백 명을 인질을 잡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을 석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 보건 당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美 UMC 사법위 “연회는 탈퇴하는 교회 폐쇄할 수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윌밍턴 5번가 연합감리교회 전경. ©John S. Lerma

미 연합감리교회(UMC) 최고법원이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연회는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윌밍턴 5번가 연합감리교회’(Fifth Avenue United Methodist Church of Wilmington)는 교인들의 교단 탈퇴 투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 의해 강제로 폐쇄됐다. 이에 대해 UMC 사법위원회는 7일 연회의 조치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사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개교회가 이미 탈퇴 절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지방 감리사의 권유 또는 해당 교회의 자체적 절차 완료 없이도 폐쇄 결정을 방해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연례회의에서 ‘윌밍턴5번가교회는 공식적으로 폐쇄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사법위가 그러한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윌밍턴5번가교회의 폐쇄 결정은 지역 감독과 및 지방 위원회의 지지를 받았고, 연회는 공식적인 폐쇄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그 교회는 UMC의 정치 아래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이의 제기와 임시 폐쇄 결정에 관한 포럼이 지난 2023년 6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에서 있었고 실제로 토론도 진행됐으나, (교회는) 연례회의에서 승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UMC 연회 전 대의원이자 종교민주주의연구소 김유진 기자

의 작가인 존 롬페리스(John Lomperis)는 “성(性)에 대한 교단의 입장과 관련해 계속되는 분열 속에, 교단을 탈퇴할 계획을 가진 교회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기간’을 효과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해당 판결은 이 과정에 ‘안전 장치’가 내장돼 있다”는 공허한 확신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매년 임명되고 ‘감독의 뜻에 따라 봉사하는’ 대다수 지역 교구 감독들의 동의만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연회 유권자의 대다수가 신학, 인종, 지리, 성격 또는 기타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교인들에 대한 의견을 갖는다면, 일시적이지 않은 이러한 행동이 나중에 연회의 투표로 차단될 수 있다는 재보증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구제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3월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윌밍턴 5번가교회의 교인들과 회의를 갖던 중, 예배 참석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이유로 교회 폐쇄를 발표했다. 연회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해당 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교인들은 매주 20명 정도로 줄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내 수천 개의 감리교회들이 LGBT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 때문에 교단을 떠났다. UMC 장정은 동성 간 결합에 대한 축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단 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이를 따르거나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다. 9일 오전 현재 UM뉴스가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UMC를 탈퇴한 교회 수는 2019년 이후 6,791개, 올해에만 4,700개 이상이다. 김유진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2부)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OC제물
성경공부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월-토)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플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Redeeming Grace(EM)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영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형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유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 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고형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PC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국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벘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안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62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호렬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E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어장년부 오전 9:30, 11: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이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림희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성령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요일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9:2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이루리라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la.com

최순환 담임목사

■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조선기독교도연맹과 평양신학교 재등장

북한 김일성 정권은 1957년부터 북한 전역에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원하여 격리와 추방과 처형을 한 후에는 1946년에 해방 후 소련 군정하에 김일성 공산 정권을 수립하는데에 전략적으로 설립했던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이었던 관계 기독교 단체를 1960년대에 다시 회생시켜 국제무대에 등장시켰다. 북한의 공산정권 수립일인 1948년 9월 19일 이후 사실상 조선기독교도연맹은 폐쇄된 것이었다.

조선기독교도연맹의 대표였던 강양욱 목사는 1963년 10월에 조선기독교도연맹의 대표로서 공산권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평화이사회'와 같은 해 11월에 열린 '평화옹호민족위원회'에 참여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의 종교 단체들과 평화 운동으로 연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1년 5월에 김일성의 발기로 북한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종교 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는 기독교 단체를 비롯한 종교 단체를 북한 정권의 체제 유지와 대외적 선전 도구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증거로서 1972년 남북 간에 '7.4공동성명'이 발표된 후 북한 사회에서는 반종교 선전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민족 통일을 위한 통일 전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발맞추어 1970년대 이후 기독교도연맹은 한편으로는 정치적 관심을 남한 사회와 교회에 까지 전략적으로 확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6.25 전쟁의 발발과 함께 문을 닫은 기독교 신학교를 계승하는 3년제 '평양신학교'를 20여년 만인 1972년 다시 개설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교회 조직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점진적 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교회 성립의 기반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있으므로 신학교가 없는 교회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평양신학교를 세운 후 1988년에야 만경대 근처 봉수 지역에 봉수교회를 건축하여 그 땅에도 교회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보여 주었다. 1972년 9월 강양욱 목사는 대남 공세를 취하기 위해 최초로 남북한 기독교인들이 접촉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그해 12월에 사회주의 헌법 공포와 함께 신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설된 주식 제도에 따라 부주석에 선출되었다. 이는 그이 대외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기도 한 것이었다. 1974년 8월에는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남한의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남한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었다. 이로써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함으로써 통일 전선의 대남 전략을 위한 선전 도구로 이용하였다.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그 활동 영역을 더욱 활성화하였다. 1975년 1월 인도 고타얌에서 열린 '아시아 기독교평화회의'와 1976년 11월에 체코의 브르노에서 열린 '세계기독교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이 회의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했다. 1974년 8월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 신청서를 내었다.

이러한 정치, 외교적 동선은 분명히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써 종교 기관을 통한 대남 사업을 전면으로 포진시켜 대남 선전 기관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과 연대하여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나아가서 대남 사업의 창구를 활용하여 통일전선의 전략적 차원에서 국제무대에 기독교 어용 기관을 등장시킨 것이다. 또한 남한 정부에 대해서는 대남 사업을 본격화한 것이기도 하다. 즉 북한 공산 정권은 기독교를 그들의 정권 유지와 대내외적 정당성 확보와 남한 정부와 교회의 침투와 혼란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한 것이었다.

이처럼 김일성 정권은 1970년대에 와서 다시 관계 기독교 단체를 통해 대외적 활동을 활성화하며 남한에 대해서는 정치적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종교 단체를 양성화하였다. 이를 위해 평양신학교 설립과 조선기독교도연맹을 재등장 시킨 것이다. (계속)

이그나티우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이그나티우스(Ignatius)감독은 그리스도를 선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죄명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역한 불경죄였다. 통상 이런 죄를 범하면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는 사형을 당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에서 체포되어 사형수의 신분으로 사형 집행을 위해 로마로 가는 중에 7개의 편지를 보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서머나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냈다. 이 서신에는 다른 교회에서 강조했던 이단 교회 문제나 연합과 일치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서신은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자신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는 갈망을 표현한다.

본 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순교에 집중한다. 먼저 그는 순교를 아름답게 묘사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그리스도를 위한 순전한 빵 덩어리가 되는 것(4장 1절)이고 하나님의 산 제물(2장 2절, 4장 2절), 하나님께로 가는 길(2장 2절)이라고 표현한다. 자신이 순교하는 것이 자신의 행운이라고 표현(1장 2절)한다.

둘째로 그는 자신의 순교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자신이 열 마리의 표범들(호수하는 로마 군인들을 의미)에 사슬로 매여서 이동한다면서 자신의 현실이 이미 순교자의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순교를 야수의 밥이 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므로 순교가 그에게 쉽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는 순교가 자신의 목표(8장 3절)라고 언급하며 이 목표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아울러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준비된 순교가 잘 이행되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순교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다른 교회에도 이런 내용을 보냈지만,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자신의 순교에 대한 열망을 꺼지 말라고 부탁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혹독한 시련에 자신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분발하도록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그도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했다. 두려워 흔들리지 않도록 기

도를 요청한 것이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의 과정이 어떠한 꺼리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자신을 괴롭힐 육체적 고통을 환영하는 선언을 한다. "불이여, 십자가여, 야수와 싸우는 것이여, 뼈들을 비트는 것이여, 사지를 토막 내는 것이여, 내 몸 전체를 분쇄하는 것이여, 악마의 잔인한 고문들이여, 오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만 하라!"고 부르짖는다(5장 3절).

총 10장 28절로 구성된 이 짧은 서신은 순교의 영광을 설명하고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이그나티우스의 열망이 가득 담겨 있다. 내용을 간추리면 서론, 순교를 열망하는 마음(1장~8장), 기도의 부탁(9장), 그리고 작별 인사(10장)로 이루어졌다. 비교적 단순한 구성이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이 로마교회에 보낸 본 서신을 읽어보면 순교를 사모하는 이그나티우스의 마음이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서는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존경하고 사랑한 나머지 이그나티우스의 처형을 막는 운동을 벌였던 것 같다. 이런 로마 교회에게 제발 자신의 순교를 막지 말아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한다.

순교를 갈망한다는 점에서는 이그나티우스가 바울을 능가한다. 바울은 순교도 좋고, 살아서 성도를 섬겨도 좋다(빌1:19)고 말한다. 반면 이그나티우스는 분명하게 순교의 길을 갈망한다. 순교자로 걷는 고난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8:3)이라고 설명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고난의 유익을 강조한다. 그는 고난으로 가득한 순교의 여정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의 성숙을 고백한다. 로마 군병의 학대를 받으면서 '점점 더 제자가 되어 가고(5:1)', 순교를 각오하면서 '제자가 되기 시작'(5:3)했다고 고백한다. 그래서 이그나

티우스 감독의 고난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로마 교회의 노력을 중지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했다. 먼저 하나님 편에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라고 부탁한다(1절). 나아가 이그나티우스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또한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권하며(7:1),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권한다. 썩어질 세상의 양식과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했다. 순교자의 유언적 메시지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를 사랑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해 주었던 교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한다. 이 편지는 서머나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쓰고 있다고 알린다. 아울러 에베소 교회 성도인 크로코스(엡2:1)가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서머나에서 네 개의 편지를 쓴다. 그가 사랑했던 교회들(에베소교회, 막네시아교회, 트랄레교회 그리고 로마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교회, 막네시아교회, 그리고 트랄레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과는 논지가 다르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순교를 향한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겸손을 잃지 않는다.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칭찬한다. 심지어 자신이 안디옥 교회 일원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진심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고난이 주님과 동행하고, 고난이 참 성도의 길로 되게 하고, 고난이 참 제자가 되게 하고,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하며 고난의 유익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고난을 이기라고 부탁한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달보트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계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공인회, 기독교대학(원) 연합회(NAUCA) 정회원, 선교학사, ESL, TESOL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은호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ATS, ABHE 정회원, 온라인 수업,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실시간 화상 수업,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수업,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학자금 지원 (Col & Pell Grants)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가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Th.M 신학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 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희망을 품고 거듭 다시 시작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새생명비전교회가 설립된 지 14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졌던 저의 삶에 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음 속에는 거듭 다시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또는 몇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실패는 인생 수업입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를 초월하는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모든 문제는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문제는 힘을 잃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됩니다. 역전 인생을 만드는 드라마의 이야기 소재

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에서 그는 “은혜”라는 단어를 12번 사용합니다. 그는 “은혜의 영광”(엡 1:6), “은혜의 풍성함”(엡 1:7), “은혜로 받은 구원”(엡 2:5, 8),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엡 2:7), “은혜의 경륜”(엡 3:2), “은혜의 선물”(엡 3:7)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산 사람입니다.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 하여금 눈부신 끈기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라고 제게 묻는 분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옥함을 깨뜨린 여인도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눅 7:47). 바울은 살인자,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였습니다(딤후 1:13).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다시 시작

게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품게 된 희망 덕분입니다. 제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1989년에 로고스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과거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면 아름다운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고통스러운 과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과거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의미를 부여하고, 과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과거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인생 수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의 순간이 미래를 위한 소중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목표입니다. 제가 경험한 강력한 에너지 중의 하나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과 그의 글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매 순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고난에 삶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수용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았다. ... 영원의 관점에서 미래를 기대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족 다음으로 결코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의사와 정신》이라는 아직 출판되지 않은 그의 책 원고였습니다. 그는 원고를 빼앗긴 후에 수용소에서 물려 구한 종이쪽지에 다시 원고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중에 그가 품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견뎌낸다.”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서 그가 쓴 책을 출판하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가 연구한 의미치료를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목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롬 15:13).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 새롭게 전진합시다. 그동안 한양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비전(Vision)입니다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보이는 세계는 가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상의 세계라 불러 봅시다. 시공에 제한받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지배를 절대적으로 받는다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큼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꿈이 오늘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길 힘을 갖게 합니다.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고시생이 잠을 이기며 열공할 수 있는 이유는 고시 합격 이후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중요성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는 한국선교 역사상 가장 큰 선교대회를 이끄는 KWMC(한인 세계 선교대회) 연차총회를 호스팅하면서 여러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말씀과 강의 및 보고를 들을 기회가 있었

습니다. 그중 한 목사님의 강의를 지금도 마음에 진하게 남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면서 가장 쉬운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교회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사역같이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사역은 후원받기가 힘들다 했습니다. 사람 키우는 장학사역이나, 크리스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사역은 결과를 보기까지 수년에서 30년은 걸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은 오랜 시간 꾸준히 해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일 때까지는 한 세대는 지나가야 합니다. 농부가 추수할 가을을 기다리며 봄에 씨앗을 뿌리듯이, 사람 키우는 일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 가시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습니

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 감으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꿈을 품습니다. 교회 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셀 모임도 모일 때마다 자연스럽게 차기 셀 목자를 양육하는 훈련이 의도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는 우리 베델교회의 꿈입니다. 이들이 자라서 미 주류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고, 베델교회와 하나님 사역의 충성된 일꾼이 되며 이민 1세대의 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끌 차세대 목회자와 선교 현장의 목회자를 키워내는 베델교회가 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망원경을 쓰면, 보입니다. 보이면 그것이 비전(vision)입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신비의 침술, 놀라운 속담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야미용선수권 우송
-아시야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르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불편함이 있는 자유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난 주간 켄터키 주 루이빌에서의 이영훈 목사 초청 CGI 성회, 북미총회 실행위원회와 목사 고시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북미총회에서 80명이 넘게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눈에 띄도록 경건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나 성회 장소에서나 어떤 모임과 이동에서도 항상 모범이 되었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군소리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

분들은 바로 저희 교회에서 간 4명의 목사고 시생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고시 시험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잠시도 판 생각, 판 짓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들처럼 모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한가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바로 방에 올라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약속 시간 전에 일찍 준비하고 미리 나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시작한 목사고시가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끝났는데도 누구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놓치지 않았고 예의를 잘 지켰습니다. 목사고시라는 쇠사슬에 묶인 것이 오히려 참 믿음을 증거 하는 기회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 이번 비행기 여행에서는 비싸(?) 보이는 강아지를 데리고 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차이나 불독인지 프렌치 불독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인은 개에게 집중하여 계속 만져주고 안아주면서 정말 개를 주인처럼 모시고 여행하는 듯해보였습니다.

그렇게 부티가 나는 개들도 반드시 개 줄에 묶여 있었는데, 좋은 주인에게 묶여 있으니 '개 팔자가 상팔자'가 되는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에 반드시 무언가에 매이고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에 매이고 묶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냥 육신과 본성

사명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는 불편함이 있는 자유

대로 살면,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리어 세상이 주는 쇠사슬에 매이고 묶이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에 매이거나 끝없는 욕심에 묶여 결국은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매임과 묶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매이고 묶이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를 지키는 군인에게 쇠사슬로 함께 묶여 지내야 했던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행28:20) 자신이 세상의 로마법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소망,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증거 하는 사명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사명 때문에 쇠사슬에 매이는 '불편함이 있는 자유'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목상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편리함과 불편함이 삶의 기준이 되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나 고난 때문에 휘둘림을 당하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사명에 매인 바 되어서 하늘의 소망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구봉주 칼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지난 주 11월 6-8일에 감사한인교회에서 We Bridge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단체, 대표: 이민규 목사, 기독일보 대표) 주최로 열린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희 감사한인교회는 We Bridge 사역의 일환인 3개의 소규모 교회를 3년 기간을 정해 놓고, 매달 정기적으로 기도와 물질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분들에게 목회에 유익할 만한 세미나를 열어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무척 감동적이었습니다. 매 예배 때, 마다 은혜가 가득했고, 테이블 모임에서 나눔을 가질 때에는 서로 눈물 흘리며, 목회를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저녁 집회 때마다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우셨습

니다. 첫날 개회예배 때, 발렌시아 지역에 19년 동안 묵묵히 작은 교회를 섬겨 오신 이견창 목사님께서 목회 간증을 나누어 주셨는데, 참여한 목회자들과 사모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33살에 당시 한인이 많지 않던 발렌시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 2년 동안은 성도가 사모님과 자녀들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매주일 사모님을 앞에 앉히고 설교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떤 때는 아장아장 걸던 자녀가 밖으로 나가버리면, 사모님은 아이를 찾느라, 혼자 설교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목회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가 작다고 내 복음이 작으나? 교회가 작다가 네가 전하는 복음이 작으나?"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목회가 작다고 교회가 작다고 목회자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크고 위대한 분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견창 목사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뵈 때마다 힐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보면,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도전을 받

게 때문입니다.

이견창 목사님 외에도 어떤 목사님 내외분은 범죄 많은 캄퉁지역에서 아이 넷과 위탁 아동 두 명, 총 여섯 아이를 키우시면서, 캄퉁 지역 분들을 위해 EM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일 주일마다 하는 일은 예배실 앞에 널부러진 술병을 치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얼마나 밝으신지, 성령으로 충만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자녀를 넷이나 키우면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큰 집에서 전도 대상이 되면, 일본 유학생들과 또 공동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현재 많은 일본인들이 전도되고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셔서, 전도하고 계신다고 하였고, 또 어떤 목사님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불러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후원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감동했습니다. 우리 감사한인교회 권사님들이 섬기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인교회는 앞으로도 전도와 선교 뿐

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목회자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너무 많아!"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펜데믹 이후로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가 목회와 선교를 그만두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목회와 선교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한인교회에서는 목회 신학생들, 선교 지망생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감사한인교회 영적 지도자입니다. 함께 같은 교회로 섬기는 분들은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섬겨주십시오. 특히, 작은 교회 목회자를 섬겨 주십시오. 때로는 목회자를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장도 봐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잘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두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더욱 존중하며, 그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귀하신 목회자들을 극진히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이너비스의 약속

- ✓ 믿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제품입니다.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 ✓ 제3자 실험실 테스트로 라벨 내용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 F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Produced in FDA Registered Facility

구매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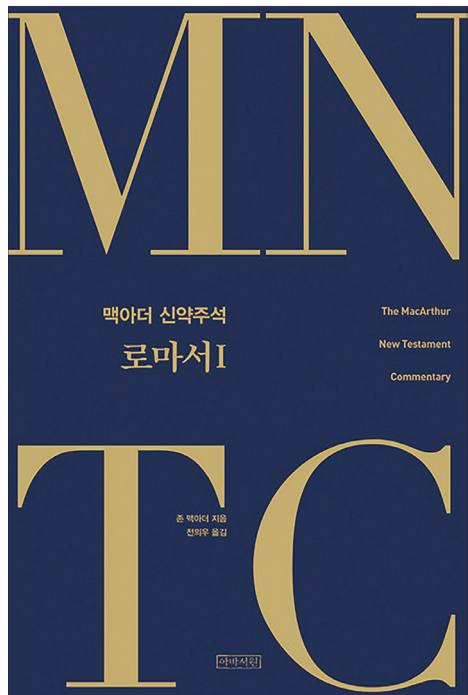
기독샵

전화구매: 213-434-1170
현장구매: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p>1 물 없이 씹어먹는 애플 사이드 비네거</p> <p>60 츠어블 타블렛 \$13.99</p> <p>애플 사이드 식초와 유산균 및 여러 종류의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체중 감량, 해독, 콜레스테롤 저하, 소화 불량 예방, 에너지 증진,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합니다.</p>	<p>2 물 없이 씹어먹는 간 회복제</p> <p>60 캔디 타블렛 \$16.99</p> <p>간 건강에 가장 좋은 조한인 밀크슬과 강황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모링가 및 다양한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간 건강, 소화력, 독소 제거, 숙취제거에 도움을 줍니다.</p>	<p>3 에너지 & 무드</p> <p>60 캡슐 \$9.00</p> <p>에너지와 건강한 기분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인 마그네슘, 비타민 C, 마카, 아슈와간다, 루마와 푸아마로 만들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p>
<p>4 목 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p> <p>120 베지터블 캡슐 \$9.99</p> <p>탈모 예방과 피부질한 개선 및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p>	<p>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p> <p>120 베지터블 캡슐 \$8.80</p> <p>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p>	<p>6 비타민 C500</p> <p>180 베지터블 캡슐 \$11.99</p> <p>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 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p>
<p>7 물 없이 씹어먹는 비타민 C 츠어블 500mg</p> <p>120 츠어블 타블렛 \$14.75</p> <p>쉽고 빠르게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B2, B6가 함께 들어있어 육체 피로와 면역력을 개선해 주며, 기미와 주근깨 예방에 좋습니다.</p>	<p>8 엠에스엠 2,000mg</p> <p>150 타블렛 \$10.99</p> <p>활력있는 생활로 돌아가세요! MSM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 피부 노화 방지, 상처 치유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p>	<p>9 면역력</p> <p>120 타블렛 \$11.99</p> <p>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p>
<p>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p> <p>120 베지터블 캡슐 \$19.99</p> <p>한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함량의 살리마린(밀크슬)을 포함하였으며, 검증된 비타민, 마네롤로 제조하여 간 건강뿐만 아니라 피로까지 회복시켜 주는 탁월한 제품입니다.</p>	<p>11 프리미엄 혈액순환</p> <p>150 캡슐 \$19.99</p> <p>검증된 다양한 비타민, 아연, 니아신,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p>	<p>12 타우린 500 플러스</p> <p>180 캡슐 \$14.99</p> <p>신경세포와 신경계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심장, 두뇌 등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C와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고, 항염으로 6개월간 복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p>
		<p>13 피쉬 오일</p> <p>120 소프트젤 \$13.75</p> <p>높은 품질의 피쉬 오일을 사용하였으며, 다량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과 심혈관, 눈의 건강의 중요 요소로 사용됩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p>

[존 맥아더의 로마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성경 주석 읽으며 '감동'받기란 쉽지 않는데...



서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교리의 정수를 다룰 때는 그만큼 지식이 요구된다. 존 맥아더 목사는 로마서 한 권의 책만 오랜 시간 가르쳤던 것은 아니지만, 50년 이상 한 교회에서 신약성경 전체를 강해 설교한 목사이다. 복음서 설교만 몇백 편 이상이고, 서신서 강해도 각 본문 중심에 위치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가르쳤다.

그가 복음주의 교계에서 뛰어난 교사와 설교자로 손꼽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철저히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복음 강사인 존 맥아더 목사만큼, 로마서 전체에 흐르는 복음의 서정과 풍성한 교리를 다룬만한 저자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2. 존 맥아더는 성경 권위에 충성한 저자

마이클 리브스는 복음주의의 핵심 특징이 '성경의 권위를 확실히 붙잡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복음주의 교계에서 존 맥아더가 목사가 존경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 어떤 신학적 유행이나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에 충실했다는 데 있다. 상당수 주석이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거나 심지어 부정하는 사상과 이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한다. 100쪽 넘는 분량으로 저작권을 부정하거나, 오늘날 문화에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을 바울 개인의 시대착오적 발언 정도로 취급한다. 그래도 많은 주석이 성경 본문 원래 의미를 밝히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독자는 그 의미를 찾는 과정 중 여러 의심과 부정과 회의를 겪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존 맥아더 목사의 로마서 신약 주석은 명쾌하다. 불필요한 논쟁은 거두고, 오직 성경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집중한다. 오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담긴 말씀 그대로를 대하게 한다.

3. 존 맥아더는 강해 설교에 특출난 설교자

존 맥아더 목사가 전 세계적 명성을 얻는 이유는 그의 특출난 강해 설교 때문이다. '강해 설교'라는 말은 많은 오해를 낳기 쉬운데, 단지 본문을 한 구절씩 설명하는 설교 혹은 강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강해 설교' 타이틀을 단 설교가 많지만, 실제로 존 맥아더 목사가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강해 설교를 전달하는 설교자는 많지 않다. 강해 설교는 본래 성경 본문의 의미에서 설교의 아이디어를 찾고, 본문의 요점을 설교 요점으로 삼는다. 청자가 목사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한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가 아니라, '성경 본문이 이것을 의미하고 나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는구나'라고 반응하게 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다. 그런 측면에서 맥아더 신약 주석은 굉장한 장점이 있다. 본문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는 것뿐 아니라 독자에게 그것이 오늘날 요구하는 합당한 적용을 제시하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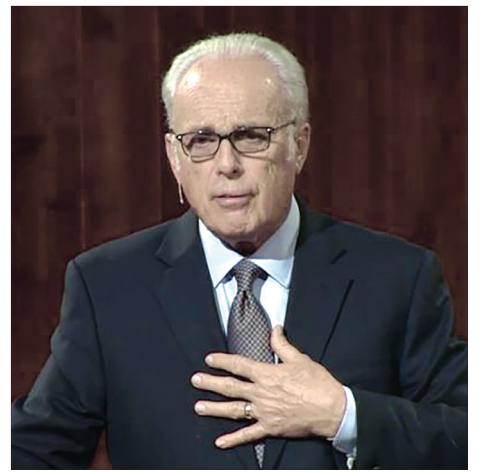
다. 특히 설교자는 이 주석 시리즈를 통해 본문의 요점과 설교 아이디어를 얻는 데 큰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존 맥아더는 주의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

주석을 읽으며 감동받기는 쉽지 않다. 철저하게 학문적이고 딱딱한 설명서를 읽는 것 같다(물론 아주 가끔, 진리가 전달하는 감동이 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주석이 독자에게 성경 본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일 것이다. 독자도 저자의 성품이나 삶의 간증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학문적으로 뛰어나 인정받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석을 통해 얻는 유익은 저자가 성경 본문의 의미를 자기 삶에 투영해 선포한 메시지로부터 온다.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중요한 문맥이 있는데, 하나는 본문의 컨텍스트, 다른 하나는 청자의 상황이다. 많은 주석이 전자에 집중하느라 후자를 간과한다.

하지만 맥아더 신약 주석은 50년 이상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인도한 청자를 위해 준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또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의 성품과 충성심을 수많은 청중이 인정한다.



존 맥아더 목사. ©유투브

결론

100만 권 넘게 팔린 주석 시리즈로 사랑받는 존 맥아더 신약 주석 시리즈가 번역돼 국내에 보급된 것에 참 감사하다. 성경 권위에 충성하고 복음 교리에 능숙하며 뛰어난 강해 설교자로, 한 장소에서 한 청중에게 수십 년간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저자의 주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 그 음성을 청종하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까지 그래왔듯 많은 유익을 줄 것이라 확신한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MNTC 맥아더 신약주석: 로마서 1

존 맥아더 | 전의우 역 |

아바서원 | 768쪽 |

45,000원

본 시리즈는 오늘날 가장 신뢰받는 성경학자 존 맥아더의 50여 년 목회 경험과 지혜 그리고 성경 연구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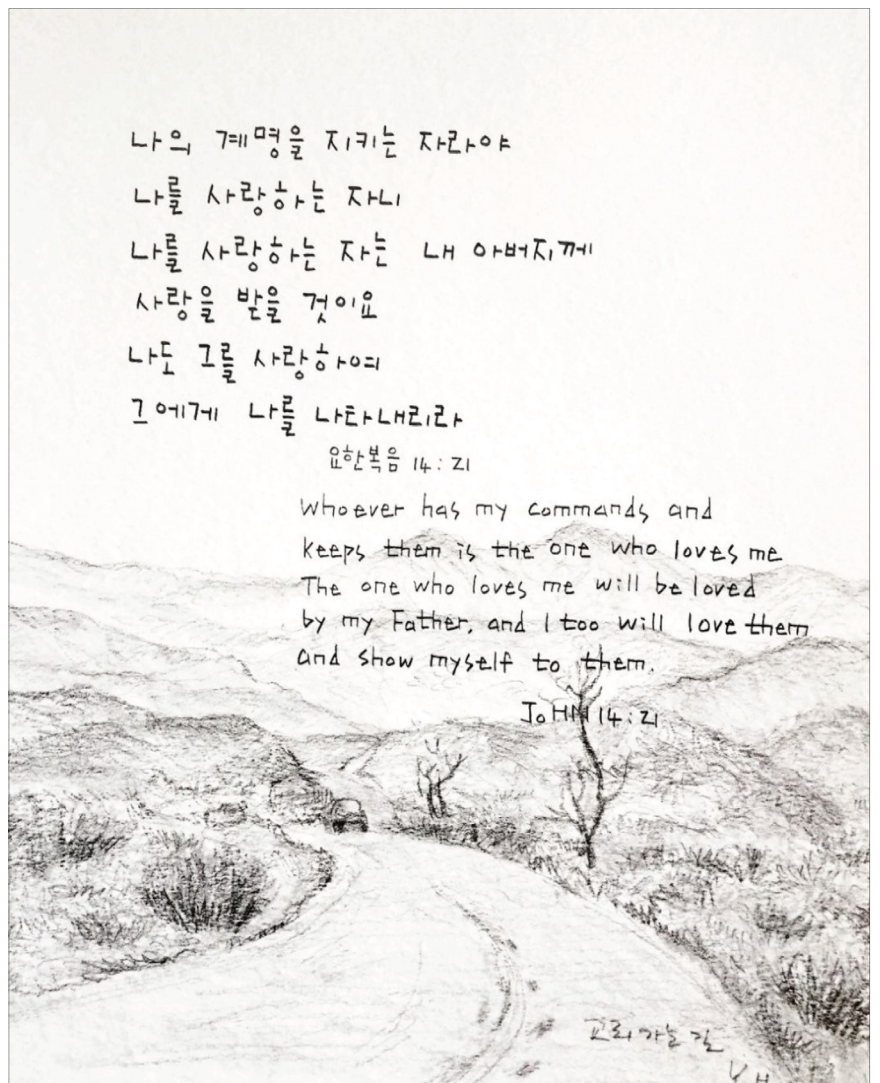
신학적 측면에서, 로마서는 육과 영의 관계, 율법과 은혜의 관계,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가르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마서는 심오하게도 하나님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모셔 온다.

존 맥아더 신약 주석 시리즈는 성경 본문의 문법적·역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한 전문 주해 자료를 제공하는 데 특화된 주석이 아니다. 그렇다 해서 일반적 강해서 형식으로 설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책도 아니다. 그러면 독자는 이 주석 시리즈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특별히 존 맥아더 목사가 정리한 로마서 주석으로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1. 존 맥아더 목사는 복음 교리에 능숙한 교사
보통 전문 주석 저자가 되려면 주석이 다루는 성경의 각 책을 적어도 몇 년, 많게는 십수 년 가르친 경력과 다수에게 인정받는 학문적인 실력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로마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미야자키 하야오

지브리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애니메이션 미화

한국·미국 대중문화 약해진 틈타
국내 일본 대중문화 영향력 커져
모국에 대한 혐오와 사랑 대치해
신도의 세계관, 매력적으로 담아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

올해 국내 극장가는 한국 영화의 흥행 부진이 지속되고, 디즈니 계열 영화들이 정치적 올바름(PC)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흥행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일본 애니메이션의 관객동원력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월에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3월에는 <스즈메의 문단속>, 그리고 지난 두 주간 동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국내 일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엔데믹과 맞물려 일본 관광 및 쇼핑 비용이 이전에 비해 크게 저렴해진 덕에 올 상반기 일본 관광객 수는 312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 관광객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코로나 팬데믹 직전 2019년의 기록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이처럼 여러 유리한 조건들이 겹쳐진 가운데,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의 한국 내 인지도와 인기도가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도 디즈니 쪽에서는 흥행력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 양쪽 대중문화계의 극장 흥행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한국 대중문화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일본 대중문화가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강점: 일본 고유의 종교성을 미화하는 환상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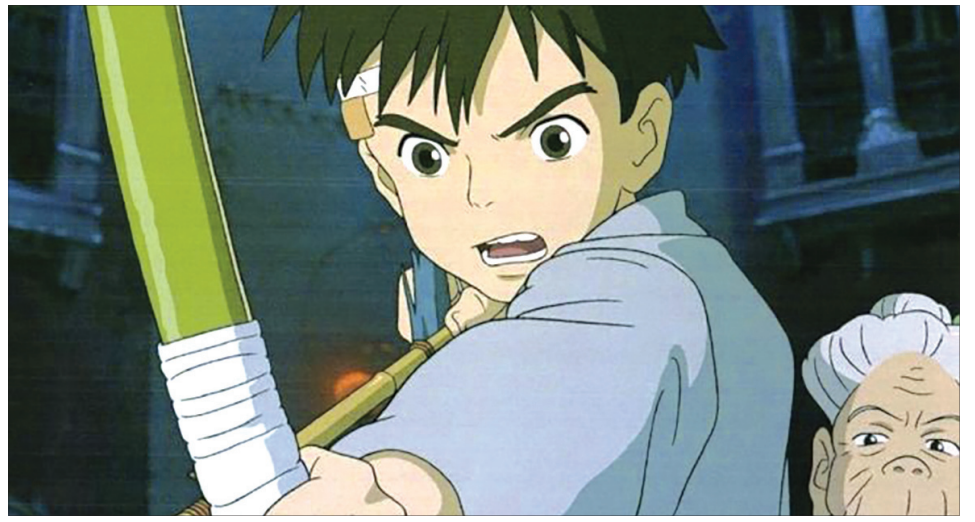
지난 두 주간 국내 일별 박스오피스 1위를 유지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 대중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이다. 당연하게도 국내에서 그리 높은 누적 관객수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자전적 서사를 담은 작품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1941년생으로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시작하기 직전에 태어나, 태평양전쟁과 그 여파로 파괴되어 버린 일본에서 유소년기를 보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 당시 일본군 군용기 부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운영했다. 미야자키 감독은 아버지의 일 때문에 어린 시절 군 출신 인사들에 둘러싸여 살았으며, 그들을 통해 일제가 주변국에 저지른 만행을 전해 듣고 자국의 군국주의를 크게 혐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젊은 시절에는 일본의 군국주의 파시즘에 대한 대안으로 좌익 공산주의 사상에 몰들기도 했으며, 애니메이터로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도 꾸준히 반전주의 휴머니즘을 옹호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감독의 어린 시절 경험과 사상적 경향이 뚜렷하게 반영된 작품이다.

작품의 주인공 11세 소년 마키 마히토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인 1943년, 연합군의 공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머니를 여읜 뒤 아버지와 함께 도시를 떠나 외가가 있는 우츠노미야시로 피난을 간다. 거기서 그는 요괴와 신비한 생물들이 가득한 이세계로 향하는 비밀의 문을 발견한다.

마히토는 그 이상한 세계로 자신의 이모가 납치된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 안에서 갖가지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사고에 휩싸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그녀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이모를 구출해 현실 세계로 돌아온다. 작품의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서사를 풀어가는 실제적인 플롯 구성 방식은 이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주인공 마히토는 두서없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어렵사리, 주위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간다. 이 작품은 미야자키 감독이 모국 일본에 대해 혐오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대치시켜 서사의 갈등을 꾸려나간다. 어머니의 죽음, 공습



지난 두 주간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킨 지브리 스튜디오의 신작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위험을 피해 낯선 시골로 피난을 간 것, 그리고 거기서 정신이 이상한 존재들(왜가리로 변신한 요괴나 말하는 펠리컨, 어리석은 앵무새 등)을 만나 고난을 겪게 되는 데서는 군국주의 일본의 전쟁범죄와 파쇼 전체주의에 대한 반감이 확인된다. 반면 일본인들의 가족애, 자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애니미즘(정령사상)에 대해서는 삶을 구원하는 힘이 있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확인된다. 이는 작중 마히토가 가족 및 가솔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점, 그리고 이세계가 마히토에게 고난을 안겨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구하고 정신적 성장을 이루게 해준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신도의 정령사상은 신들이 만물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이 곧 신들의 세계와 연결돼 있다고 가르친다. 작중 이 세계는 이런 신도의 세계관을 반영한, 현실성과 초월성이 뒤섞인 공간이다. 미야자키 감독은 이 작품에서 자연과 정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숭앙 정서를 지극히 유려한 작화와 연출을 통해 미화하고 있다. 이것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나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과 같은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바로 이 점에서 일본

의 애니메이션, 특히 지브리 스튜디오의 강점이 두드러진다.

실화 영화로는 도저히 발휘하기 힘든 환상의 힘을 극도로 정제된 작화력과 연출력을 통해 발휘해, 일본인들이 삶과 세계를 대하는 데 있어 보이는 사상적 강점을 대단히 매력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기 위해 지브리 작품과 같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애니메이션이나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적이 없던가. 1998년 드림웍스가 제작한 <이집트 왕자> 이후로 그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 계몽시대 이전까지 영상 콘텐츠가 없던 시절, 서구에서는 문학과 회화가 오늘날 영상 콘텐츠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었다.

이 시기 최고의 문학, 최고의 회화작품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기 위해 창작되었다. 당시보다 훨씬 더 세속화되고 고도화된 문명을 누리는 현재, 문화가 종교에 전적으로 봉사하던 과거 세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어도 신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최고의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고 활용하던 정신은 오늘날 기독교계 또한 유지하고 계승할 필요가 있다. <계속>

박옥주 박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HAPPY Thanksgiving

Hills BEAUTY CLUB

힐스 미용실

오랜 경험과 화려한 미용경력으로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을 완벽하게
디자인해 드립니다.

- 신부화장
- 신부헤어
- 남성컷
- 여성컷
- 부리염색
- 일반펌
- 셋팅펌
- 헤어코팅, 매직염색

• Tue ~ Sun: 9:00 am ~ 7:00 pm
• Monday : Closed

323-465-7400

21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홈쇼핑월드 추수감사절 특별한감사세일

NEW 웹사이트
hswus.com

행복한 추수감사절 맞이하기 위한 어썸한 세일 어텀?!

세일 기간 | 2023.11.17(금) - 11.20(월)

건강식품, 생활가전, 주방·미용·위생용품 한국산 먹거리 등 제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드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추수감사절 특별한 감사 세일!!

<p>옛날 짬야찌 명이나물, 마늘즙, 설탕, 깻잎, 고추 -\$9.99 \$5.99</p>	<p>Immune-11 면역력 향상제품 60캡슐 -\$49.00 \$10.00 *1인 5병 한정</p>	<p>완도 곱창김 160g -\$24.99 \$14.99</p>	<p>완도 알명게 250g -\$19.99 \$14.99</p>	<p>기적의 명약 산삼환 3.75g_10환 -\$69.00 \$15.00 *1인 3박스 한정</p>
<p>바다 장어 400g_2-4마리 -\$29.99 \$17.99</p>	<p>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 연어&양&소 전연령 -\$29.99 \$19.99</p>	<p>6제로 플러스 강아지 사료 2kg 연어&양&소 시니어 -\$29.99 \$19.99</p>	<p>소백코리아 홍삼절편 10본 -\$54.99 \$24.99 *1인 3박스 한정</p>	<p>몽크로스 후라이팬 4구 -\$49.99 \$24.99</p>
<p>안심고급 전기요 M_100*180cm (+3) EMF 전자파 차단 열선 사용 \$74.00</p>	<p>안심고급 전기요 L_135*180cm (+3) EMF 전자파 차단 열선 사용 \$79.00</p>	<p>몽크로스 헤어 드라이기 -\$259.00 \$99.00</p>	<p>극세사 이불 Small -\$149.00 \$99.00</p>	<p>종근당 산삼배양근 1박스 \$99.00 4박스 \$99.00 1+3 신제품 양근</p>
<p>극세사 이불 Queen -\$169.00 \$129.00</p>	<p>극세사 이불 King -\$199.00 \$149.00</p>	<p>무전자파 순면 온열매트 싱글 -\$200.00 \$159.00</p>	<p>무전자파 순면 온열매트 더블 -\$250.00 \$189.00</p>	

불경기 타파, 원가이하 폭탄세일!!

<p>옷장 탈취제 1개입 -\$2.99 \$1.00 *1인 10개 한정</p>	<p>보리쌀 늘보리쌀 1kg -\$8.99 \$2.99</p>	<p>돌자반 볶음 60g -\$3.99 \$2.99</p>	<p>현미 참쌀현미 1kg -\$11.99 \$3.99</p>	<p>볶은 보리차 참옥수수차 유기농 보리차 1kg 400g -\$8.99 \$3.99</p>
<p>쥐눈이 약콩 500g -\$14.99 \$4.99</p>	<p>곽티슈 160매 1박스 \$4.99 3박스 \$1.66 \$4.99</p>	<p>완도 건미역 200g -\$9.99 \$6.99</p>	<p>떡태 35g 1팩 \$6.99 4팩 \$2.49 \$9.99</p>	
<p>다목적 세정제 500ml 1병 \$9.99 3병 \$3.33 \$9.99</p>	<p>아즐렛 스킨 큐어밤 -\$24.99 \$9.99</p>	<p>도라지 홍삼청 500g -\$49.00 \$24.50</p>	<p>녹용홍삼 프리미엄 50ml_30포 -\$99.00 \$28.99</p>	

인기상품 앵~클 세일!!

<p>산채, 곤드레, 부지깽이 나물에 비빔밥 10.5g -\$6.99 1팩 3팩 \$3.99 \$9.99</p>	<p>전복 해물 볶음밥 250g -\$6.99 \$3.99</p>	<p>전복 김치 볶음밥 250g -\$6.99 \$3.99</p>	<p>완도 광어죽 320g -\$7.99 \$4.99</p>
<p>완도 전복죽 320g -\$7.99 \$4.99</p>	<p>강원도 황태포 1피 -\$9.99 \$5.99</p>	<p>강원도 황태포 3피 -\$24.99 \$14.99</p>	<p>침향단 프리미엄 3.75g_30환 -\$99.00 \$35.00 *1인 3박스 한정</p>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hswus.com
youtube.com/tvkoi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파크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맬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and may be sold out early.